

6/7/15

설교 제목: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요한복음 15:1-16

(요 15: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 15: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 15: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 15: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15:10)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 15: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15:11) 함이라

(요 15: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5:12)

(요 15: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5:13)

(요 15:14)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14)

(요 15: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15:15)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 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절관주** 요 6:70

(빌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갑자기 우리 자신이 능력자가 된 기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이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큰소리 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나는 진정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앞 절인 11,12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 4: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 4: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천막을 만드는 자비량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족 출신이지요.

그는 소아시아 길리기아 지방의 중심 도시 다소 (현재의 터키, 키리키아의 타르소스)에서 태어났으며 가말리엘 문하생이었습니다.

당시 다소는 지금의 뉴욕쯤 되는 곳이며, 가말리엘 문하생이라는 것은 지금의 하버드 대학 졸업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기에 도무지 흠잡을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거기에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런 그의 배경으로 보아 그가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별 어려움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려움이 없었다기보다는 누리고 사는 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교회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교인들이 시험에 들까봐 자신이 직접 천막을 만들어 생활비와 복음 전파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를 쓰고 있던 당시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여러모로 형편이 좋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한 말이 '나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전능성을 나타낸 말이 아니고 '내가 처한 어떤 상황 하에서도, 어떤 경제적인 여건 하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의미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본문에 나오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절도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인용되어 쓰여지고 있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대개는 이 말씀을 '기도해라 그러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기도한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병이 치유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부부가 금실이 좋아지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온갖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만 되던가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라면 왜 현실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7 절에 그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우리가 원하는대로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내 말'은 곧 '말씀'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므로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이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바로 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 유월절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서는 만찬 후 그동안 고락을 함께 했던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의 머리 속에는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 후 사랑하는 제자들, 당신이 떠난 후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핍박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하는 이들을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진리와 함께 그들이 험한 세파를 가르며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유명한 포도 나무 비유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 일부분입니다.

내용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1.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농부라고, 그리고 당신은 포도 나무, 우리는 포도 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15: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 나무요, 우리는 포도 나무 가지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포도 나무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 가지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리켜 농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포도 나무, 그중에서도 가지입니다.

포도 나무도 농부의 소유이고, 엄밀히 말해 포도 나무에 속한 가지도 농부의 소유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므로 포도 나무 가지인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포도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 43: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택함을 받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고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양 착각하고 행동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내 생명도, 내가 가진 재물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일진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포도 나무 가지가 포도 나무나 포도 나무 농장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농부는 농사짓는 모든 일정을 결정합니다.

언제 밭에 거름을 줄지도, 언제 가지를 칠지도, 언제 열매를 수확하여야 할지도, 언제 열매에  
봉지를 씌울지도, 언제 포도 열매를 수확할지도 모두 농부가 결정합니다.

가지가 주장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가 할 일은 농부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자신에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가지 자신이 때를 정하고,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주제 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때와 해결 방법까지 정해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파산 일보 직전입니다. 이번 달까지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암입니다 살려 주세요, 아니면 10 년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애들 시집 장가까지 보내고 죽어야지요." "우리 아들 이번에 하바드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 선거에 꼭 이기게 해 주세요.." 등등 말입니다.

농사의 모든 때를 농부가 결정하듯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잠잠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된, 오랜 세월을 붙들고 산 말씀입니다.

(롬 8: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농부는 포도 농사를 짓는데 전문가입니다.

표도 나무가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포도 나무를 위해서 나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그 방법이 그 때가 우리가 생각했던 길과 방법과 때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그 방법이 그 때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 2.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포도 나무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재나 땀감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농부의 관심이 오로지 어떻게 하면 포도 열매를 많이 얻을까?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농부되신 하나님의 관심도 오로지 우리의 열매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되신 하나님이 포도 나무 가지인 우리로부터 그토록 얻기 원하시는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 5:23) 온유와 절제니

그런데 원문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sup>22</sup>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sup>23</sup>gentleness and self-control.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쓰여졌다는 말은 성령의 열매가 9 가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9 가지 열매는 한 인격, 곧 예수님의 성품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갈 수 있습니까?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요 15: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

15: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3.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응답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요 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은 그 열매로 당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함이 없는 그치지 않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삶 즉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하는 바를 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우리가 구한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